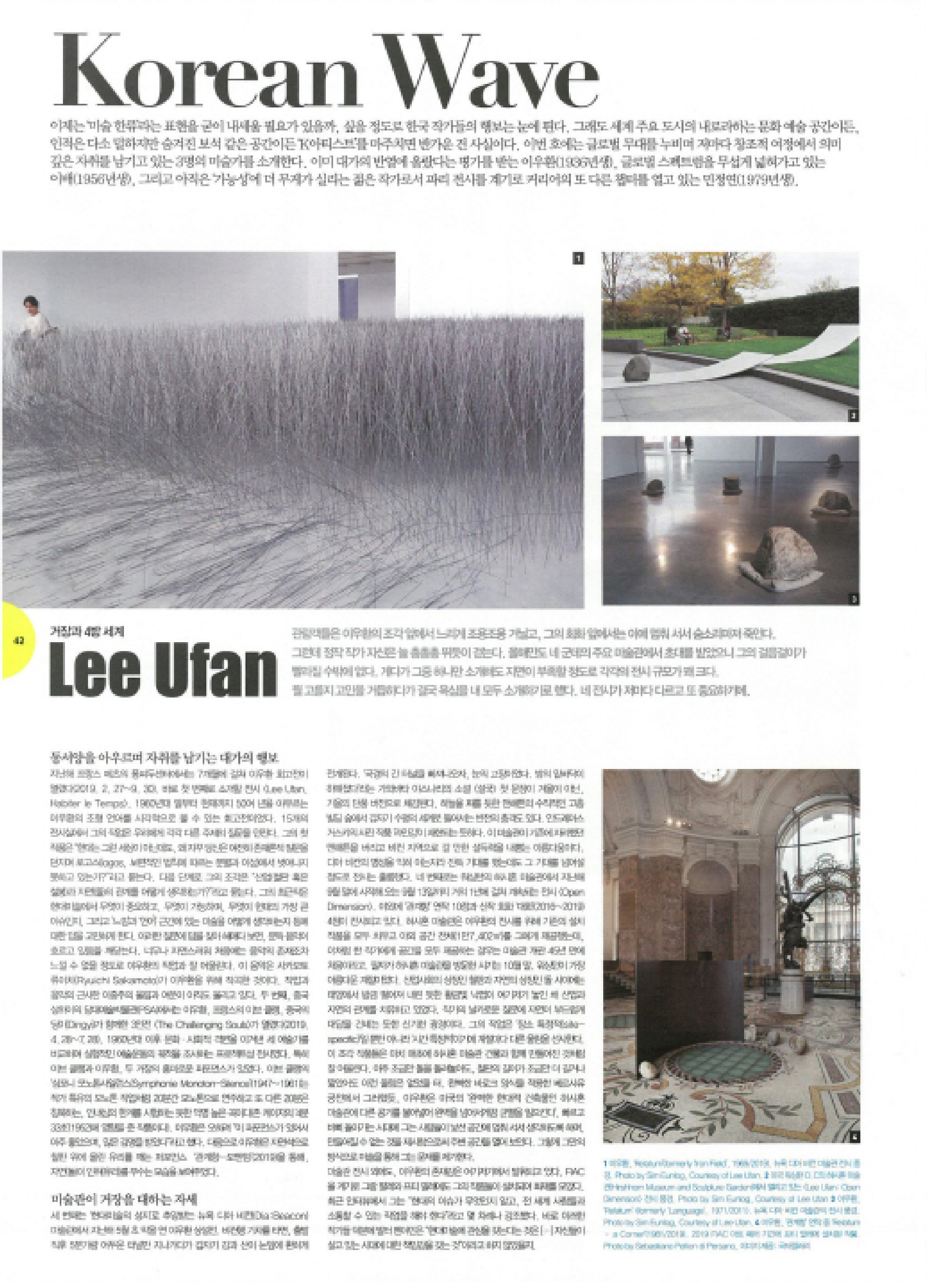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Korean Wave

January, 2020 | edited by 고성연



Korean Wave

이제는 '미술 한류'라는 표현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작가들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래도 세계 주요 도시의 내로라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든, 인적은 다소 뜸하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이든 'K아티스트'를 마주치면 반가운 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저마다 창조적 여정에서 의미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3명의 미술가를 소개한다.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이우환(1936년생), 글로벌 스펙트럼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는 이배(1956년생),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젊은 작가로서 파리 전시를 계기로 커리어의 또 다른 챕터를 열고 있는 민정연(1979년생).

42

거장의 4색 세계

Lee Ufan

관람객들은 이우환의 조각 앞에서 느리게 조용조용 거닐고, 그의 회화 앞에서는 아예 멈춰 서서 숨소리마저 죽인다. 그런데 정작 작가 자신은 늘 총총총 뛰듯이 걷는다. 올해만도 네 군데의 주요 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았으니 그의 걸음걸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중 하나만 소개해도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각각의 전시 규모가 꽤 크다. 뭘 고를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욕심을 내 모두 소개하기로 했다. 네 전시가 저마다 다르고 또 중요하기에.

동서양을 아우르며 자취를 남기는 대가의 행보

미술관이 거장을 대하는 자세